

지난 6월 28일 우리협회는 회원사 임직원들의 실무지원을 위해 2000년도 제1차 항공우주산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정부와 산업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주제내용의 요지를 게재하였다.

## 항공우주산업 육성정책 방향

| 산업자원부 산업기계과 과장 | 남인석 |



“항공우주산업은  
범정부차원에서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하고  
업체 및 연구개발체제  
재편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향상을 도모해야”

### 항공우주산업의 특성

항공우주산업은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는 대표적인 지식기반 산업이며 고부가가치의 첨단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활용되는 종합 조립산업으로 기술파급효과가 커서 산업 구조고도화를 촉진시키는 역할도 한다. 또한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위한 기반 산업으로서 전 세계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어준 기술적인 기반을 토대로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통신위성의 활용 및 정보화 사회의 기초 자원으로 각종 위성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의 연구개발 투자와 초기 고가의 설비투자의 부담으로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는 산업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 각국은 자국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

단으로 최종조립업체를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도 하며 국가의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도 한다.

실례로 미국은 보잉, 록히드마틴 2개사, 영국은 BAe 1개사, 프랑스는 Aerospatiale 1개사 체제로 변모했고 '99년 10월 14일에는 독일의 대표적인 항공우주업체인 DASA와 프랑스의 Aerospatiale사가 합병을 함으로써 자국내 업체의 통합 뿐 아니라, 국경을 넘어선 통합과 제휴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었고 후발 항공산업국은 산업발전 초기단계에서부터 1개국영기업(이스라엘 IAI, 브라질 Embraer, 인도네시아 IPTN)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방법으로 날로 변해가는 세계화추세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G7국가의 항공우주산업 시장동향]**

(단위 : 억 달러)

연 도	1993	1995	1996	1997	1998	1999(잠정)
생산규모	1,879	1,728	1,818	2,106	2,374	2,519

**[국내 항공우주산업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 10억원, 백만 달러, %)

구 분	'98	'99	2000	2000/99
생 산	1,340	1,215	1,293	6.4
수 입	1,175	1,003	863	-14.0
수 출	379	336	339	0.9
내 수	1,906	1,913	1,884	-1.5

**항공우주산업 현황**

**가. 해외현황**

'98년 세계 항공우주산업 생산액은 2,600억 달러 규모로 미국 등 G7국가의 생산액이 2,374억 달러로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90년대 후반부터 민수부문의 경기회복으로 생산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세계 항공우주산업계는 90년대 초 군·민수 산업의 동시불황과 경쟁 심화로 구조조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됨으로서 기업간 흡수나 합병을 통한 움직임이 활발해 졌다. 유럽 역시 70년대에 이미 유럽 공동의 "에어버스", "아리안 스페이스" 등의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미국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발전 초기 단계인 브라질, 대만, 인도네시아 등 후발국은 단일화된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96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한 민항기 부문의 생산증가는 2000년대 초반까지도 지속될 전망이며 80년대 후

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군수부문 생산은 당분간 현재 규모를 유지할 전망이다. 우주산업은 통신 및 위성방송 수요의 지속적 증대와 지구 관측 및 과학실험 활성화 등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최근 통신수요의 증가로 저궤도 이동통신용 인공위성에 대한 수요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나. 국내현황**

'99년 기준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생산은 F-16 등 군용기 사업 종료로 전년대비 9.3% 감소한 1조 2,150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수출은 전년대비 11.3% 감소한 3억 3,6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98년말 기준 세계시장 시장점유율은 약 0.5%이며 매출액 규모로는 세계 15위이다.

최근 국내 항공기산업은 중형항공기개발사업 중단과 F-16 등 군용기 생산사업의 일부 종료로 다소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F-16 20대 추가 생산결정 및 군용기 개발 사업이나 전투기 사업, 헬기 사업 등이 계획 중에 있으므로 활기를 띠 전망이다. 민항기부문도 통합법인이 설립되어 재추진 중에 있으며 우주부문 역시 다목적 실용위성과 과학위성 등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발사체 개발과 발사장 건설을 통해 국내 독자 발사가 가능하도록 추진중에 있다.

산업에서는 '98년 기준 국내 제조업 생산의 0.3%, 고용은 0.4%에 불과하며 군수의존도가 80%에 이르고 있으며 민수는 대부분 하청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품업체가 취약하여 대부분의 중간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과급 효과가 제한되어 있어 부가가치도 떨어지는 상태이다. 군수분야도 취약한 실정이다.

하지만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고동훈련기(KTX-2)' 개발사업과, 국방부 다목적 헬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생산규모의 증가를 도모할 수 있으며 항공기 통합법인과 해외 선진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향후 훈련기, 중소형항공기, 헬기의 독자개발 능력을 확보하고, 대형 민항기 주요한 부품 생산기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다. 국내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  
국내 산업계는 총 생산규모 10

역할 내외에서 다수의 업체가 경쟁하면서 중복투자가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인 생산체제 영위를 해왔으며 관련 인력, 설비 등 주요자원이 분산되어 경쟁력이 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기술축적, 중복투자 방지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업체간 통합 등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결과 대우, 삼성, 현대 등 항공 3사 통합법인 설립합의(98.9),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정식 출범(99.10), 외자유치 최종협상대상업체로 Boeing/BAe팀을 선정('00.5.12)과 함께 현재 통합법인과 Boeing/BAe팀간 투자협상이 진행중에 있다. 금년내로 외자유치와 출자전환을 마무리 할 예정이며 해외 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세계 시장의 Global Network에 참여하고 아시아 지역 내 항공우주분야의 주요기업으로 성장할 계획이다. 정부 역시 항공통합법인을 중심으로 국내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로 4월 22일 제 2차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으며 7월중 특정사업자 지정 예정 및 F-16 추가생산 최종 결정을 할 방침으로 정하고 있다.

### 항공우주산업 육성정책

#### 가. 기본방향

항공우주산업은 국가안보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되어야 하며 범 정부 차원에서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하고 업체 및 연구개발체제 재편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한 부품, 소재산업의 육성, 해외 선진업체와 전략적 제휴 강화로 세계 산업계의 재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 나. 주요 육성정책

유치단계인 국내 산업현실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발전비전 및 정부주도의 발전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난 99년 4월 "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기본목표는 2015년까지 중소형항공기 생산, 전투기, 헬기 등의 독자개발 능력을 확보하는데 있고 2005년까지 국내 기술로 저궤도 소형위성 및 발사체 독자개발과 2015년까지 아·태 지역의 우주산업 중심국가로 도약하는데 있다. "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부처별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중이며,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관련 부처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항공우주산업개발 세부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난 6월 10일 제4회 항공우주산업개발 정책실무운영위원회에 보고되었으며 7월중 정책심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 『항공우주산업 특정품목과 특정

#### 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상 산업자원부 장관은 항공우주산업 관련 특정품목과 특정사업자를 지정하여 동법에 따른 각종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품목과 특정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운영요령" 제정하여 지난 6월 21일 고시한바 있다. 특정사업자는 산업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에서 우선 지원할 계획으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중 항공우주분야 사업 추진시 특정사업자를 우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가 소유한 연구개발 시설이나 그 부분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특정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체의 전문화 및 계열화 규정』(국방부, 산자부 공동훈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따라 항공우주분야의 분야별 전문업체 성장이 기대된다. 국방부 전문화 계열화 제도와 연계하여 분야별 전문업체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중복투자소지를 없애고, 경쟁력 있는 전문업체를 육성 할 계획이다. 7월중 『특정사업 자문위원회』구성하여 특정품목 공고 및 특정사업자 지정 신청을 접수하고 8월중 특정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